

데 주로 호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 5. 자궁 경부암에서 방사선 조사 후 자궁경부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Morphologic Changes of Postirradiated Cervical Cells in Cervical Cancer

전주예수병원 해부병리과

이혜경, 이광민, 정동규

자궁 경부암 진단 이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때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는 환자에 따라 다른 방사선 조사에 대한 치료 결과이다. 이러한 치료 결과의 결정, 혹은 장기간에 걸친 예후의 결정 인자로서 진단 당시 환자의 병기결정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방사선 치료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세포 도말 검사 또한 환자에 따라 다른 방사선 요법에 따른 반응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 저자들은 시간에 따른 다양한 세포학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세포질내 공포화 현상, 다핵 거대 세포 출현, 세포질의 호청성, 호중구의 부착현상, 방사선 조사 후의 이형성세포의 유무등을 시간에 따라 그의 변화양상을 검색하여 그의 임상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297장의 슬라이드를 검토하였으며 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궁 경부암의 조직학적 진단과 방사선 조사후 나타나는 형태학적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학적 변화의 가장 일반적인 소견은 세포질내 공포형성으로 56례(96%)에서 관찰되었으며, 공포의 크기는 다양하였고 방사선 조사 후 초기에서부터 10년 후까지 비교적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었다.

세포질의 호청성은 55례(92%)에서 관찰되었으며 주로 기저세포양 세포에서 관찰되었다. 양성 조직구들에 의한 다핵 거대 세포는 38례(63%)에서, 호중구들의 세포부착현상은 48례(80%)에서 관찰되었으며 다핵 거대 세포인 경우는 95%가, 호중구의 부착현상은 92%가 3년이내에 관찰되었다.

방사선 조사 후 이형성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정형 세포, 소멸되어 가는 종양세포, 조사 후 재생되어가는 반응성 세포들인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간의 감별은 쉽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 후 6개월이내에 관찰되는 심한 다형성의 세포들은 비정형 세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멸되어 가는 종양세포, 혹은 반응성 이형성 세포로 생각하였으며 방사선 조사 후 소멸되어 가는 종양세포들은 심한 이형성증과 함께 다형성증, 다핵거대세포화, 세포질내 공포형성, 호청성등을 동반하면서 조사 후 3개월부터 10년까지 관찰되었는데 환자들간에 시간의 차이가 심 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발견되는 이형성 세포의 진단은 생검 후 조직진단을 참조하였는데 5례(8%)에서 관찰되었으며 세포들의 크기는 기저세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작은 크기로 핵내에는 불규칙한 염색질의 농염없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염색질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로 2개의 세포보다는 5~6개의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관찰되었다.